열대야

더위탈출 新풍속도

올빼미 산행족 "夜~好!"

계곡 인근 식당 '심야 특수'
할인점·영화관 피서객 몰려
도심 공원 '돗자리族' 북새통

장마 뒤끝, 찜통더위와 열대야(熱帶夜)가 이어지면서 더위 탈출 및 숙면을 위한 신 풍속도가 등장하고 있다.

◇노숙형=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주월드컵경기장, 상무공원, 5·18공원 등 광주지역 각 도심 공원은 돗자리를 들고 나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웃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앉아 삼겹살 파티를 여는 이들도 많고, 텐트와 야전침대 등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근린공원과 학교 운동장도 한밤중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다.

◇야간 산행형=무등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된 지난 29일 이후 야간 산행을 위해 무등산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600~7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랜턴 등 간단한 장비를 갖추고 2~3시간 가량 소요되는 중머리재·장불재 산행을 즐기고 있다.

증심사와 무등산장 계곡 인근 식당도 밤 늦게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오랜만에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는 증심사와 무등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한동안 교통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증심사 입구 한 식당 주인은 "최근 이틀간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손님들이 찾았다"고 말했다.

◇올빼미형=새벽 1시까지 영업 중인 롯데마트 상무점의 경우 종전 오후 6시 이후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 34%로 늘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도 밤 시간대 매출이 증가하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고 각종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냉방이 잘되는 영화관과 PC방은 젊은 연인과 신혼부부들의 놀이터가 됐다. CGV는 8월말까지 밤 11시 이후 상영되는 영화 2편을 '1만원'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대학생들에게는 1천원 할인 혜택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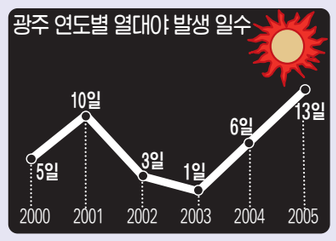
전대와 조대 후문 등 대학가 PC방은 새벽녘까지 젊은 손님들로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강모(21)군은"극장은 밤새도록 있을 수 없어 PC방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열대야(熱帶夜·tropical night)=새벽 3시~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할 때 밤에 복사냉각의 효과가 감소하며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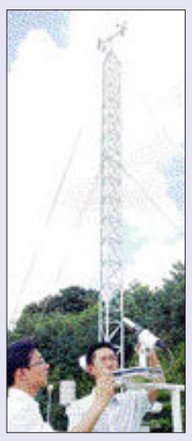
도시지역은 농촌에 비해 사람·건물·자동차·공장이 많아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아스팔트 도로는 쉽게 가열되며 건조해진다. 높은 빌딩 등 인공 구조물이 많아지면 굴곡이 크고 표면적이 넓어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은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열섬 현상'(heat island)으로 열대야를 유발하게 된다.

밤 기온이 26도를 웃도는 등 열대야가 지속된 지난달 30일 밤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시민들이 운동으로 더위를 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열대야 어떻게 측정하나

광주 6곳 자동관측장비 1분마다 기상청에 송출



광주지방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로 열대야를 측정한다.

AWS는 광주지방기상청 내 '노장'(露場·열을 덜 받기 위해 잔디를 깔아 놓은 곳)에 설치된 높이 17m짜리〈사진〉를 비롯해 ▲조선대학교 대기학과 옥상(6m) ▲광산구 농업기술센터 옥상(6m) ▲하남공단 내 옥상(6m) ▲월드컵경기장 안(10m) ▲무등산 장불재 KBS 중계소 옆(10m) 등 6개가 있다. AWS는 철탑 끝 부분에 있는 센서에서 온도·풍향·풍속·강수량을 측정, 전산망을 통해 1분에 1번씩 기상청으로 정보를 보낸다.

AWS 한 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850만~1천만원. 광주지방기상청 내에 있는 것은 습도·지열·일사 및 일조량 등도 관측할 수 있고, 가격은 4천5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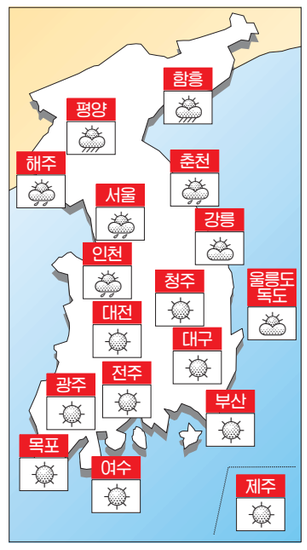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땡볕에 녹겠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8월 1일 (음 7월 8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4~33℃
목 포	구름조금	25~32℃
여 수	구름조금	25~30℃
완 도	구름조금	24~32℃
구 례	구름조금	23~34℃
해 남	구름조금	23~32℃
장 흥	구름조금	23~33℃
고 흥	구름조금	23~32℃
순 천	구름조금	22~34℃
영 광	구름조금	25~32℃
진 도	구름조금	24~32℃
전 주	구름조금	24~34℃
남 원	구름조금	22~34℃
정 읍	구름조금	23~34℃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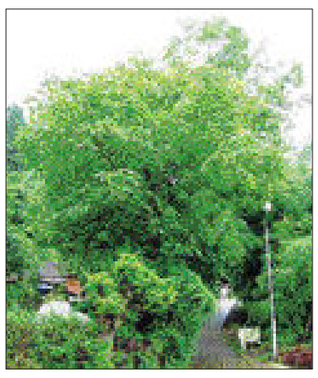
목포 밀물〈06:07 18:49 썰물〈11:30 23:50
여수 밀물〈00:33 13:09 썰물〈06:41 19:07

▲해뜸 05:41 ▲해짐 19:36 ▲달뜸 11:57 ▲달짐 22: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 씨						
최저/최고	24/32	25/32	25/33	25/33	24/32	24/31

화순 주평리 호두나무 등 광주·전남 10건
천연기념물 추진대상 나무 선정



문화재청은 100년 이상 된 전국의 유실수(과일나무) 중 광주·전남 10건 등 49건을 천연기념물 추진대상 나무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화순 남면 주평리 호두나무〈사진〉는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고목으로, 높이 25m·가슴 높이 및 줄기 둘레 2m30㎝·폭 20m에 달하는 희귀 유실수다.

또 ▲담양군 용수리 모과나무 ▲순천시 백록리의 감나무· 매실나무 ▲장성군 주산리 모과나무 ▲화순군 죽청리 감나무· 석류나무 ▲화순군 주평리 개살구나무 ▲구례군 신월리 감나무 ▲보성군 율어리 돌배나무 ▲전남대 홍매 등도 천연기념물 추진대상에 포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 '괴물' 모티브는 '포르말린 방류사건'

2000년 美군의관이 지시 '떠들썩'
대박 흥행에 수면위 다시 떠올라

개봉 4일 만에 전국관객 263만4천154명을 동원하며 파죽지세의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 영화 '괴물'(감독 봉준호)의 첫 장면.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하수구에 버리라고 지시하는 미군 군의관이 등장한다.

"한강은 크고 넓다"며 방류를 명령하는 그의 모습은 지난 2000년 2월 한강에 포르말린을 방류한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 부책임자 앨버트 맥팔랜드(당시 54)씨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

'한강 포르말린 방류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맥팔랜드 사건'. 맥팔랜드는 당시 한국인 군무원에게 방류를 지시했었다.

시체를 방부처리하는 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용액(포르말린)은 30~50% 희석해 소독약품이나 항생제로도 쓰이지만 암과 출산 장애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극물.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30ppm인 상태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의 증상이 나타나며, 50~100ppm이면 폐수종이나 폐격막염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영안실 측은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48병(1병=475㎖)을 아무런 정화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보냈다. 맥팔랜드 씨는 45일의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근무하면서 승진을 했다. 지난해 1월 열린 재판에서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한강에 무단 방출된 독극물을 먹고 자란 돌연변이 괴물의 출연이 다시 '맥팔랜드 사건'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고질라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졌듯, 내 영화도 너무나 완벽한 실제 사건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 실제 일어났었고, '괴물'이라는 '대박 영화'를 탄생시킨 것은 아이러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운전면허 학과시험
안전문제 위주 출제

경찰청은 1일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안전운전 관련 내용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이달부터는 ▲자동차 제한속도 ▲안전띠·정지선 등 운전자 준수사항 ▲위험예측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주정차 금지 ▲노인·장애인 등 약자 보호 등 문항이 집중 출제될 전망이다. 실제 운전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다루는 문항도 다수 출제된다.

경찰은 또 외국어 번역 문제지·청각 장애인용 수화 비디오·문맹자용 음성 오디오 등을 제작해 외국인·장애인·문맹자 등도 쉽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05 에너지 절약 평가' 광주시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산업자원부의 2005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23개 업체와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을 전국 최초로 100% 체결해 연간 3억원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5천86t을 저감시키는 등 에너지 절약 6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89개소(1천200㎾) 설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50㎾) 설치, 에너지 자족형 그린빌리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